



서평

윤권순 지음 **화학정보** 어떻게 찾을 것인가

화학정보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 제시

李 禹 永
서울대 자연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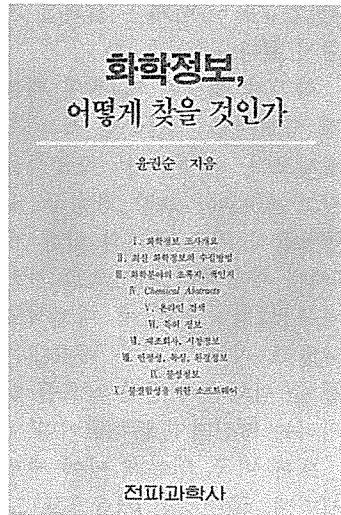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정보」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은 기업과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선진공업국에서는 대학 커리큘럼에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정보 접근법에 대한 강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서적이 많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분야를 포함해서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정보 접근법에 대



한 전문적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서적이 전무한 형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화학정보,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국내 최초로 특정 과학기술정보 접근법에 대한 책의 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처 신고서류의 작성요령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는 저자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 전달기구인 산업연구원(KIET)

에서 산업계와 학계의 화학분야 종사자들과 수시로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화학분야(화학, 화공, 섬유, 고분자, 요업, 약학, 농학, 식품 등)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 검색, 특허정보, 환경관련정보, 시장정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특정 목적에 따른 주요 정보원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화학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다만, 국내 시장조사에 대한 설명과 규격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하겠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출간된 화학정보에 대한 안내서로서, 화학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해서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화학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책이 출간되길 바란다.

<윤권순 지음 / 신국판 / 297쪽 / 6,000원 / 전파과학사 펴냄>